

# 정부 “내달 25일 금강산회담 열자” 北에 역제의

### ‘금강산 회담’ 개최 제안은 수용... 날짜 한달뒤로 늦춰

###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 접근... 분리 재차 강조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와 관련, “조급하게 회담을 개최하기보다는 9월 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20일 북측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이날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경과되는 등 여러 가치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고령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

적 문제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성공단 합의를 계기로 남북 현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이날 관문점 체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에 남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 찾기 신청 접수처에서 이근순 할머니가 신청서 등록 확인과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통일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같은 날 발간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을 정리하는 해설 자료를 류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승원 칼럼

아침 여섯 시에 설레는 가슴으로 집을 나선다. 나를 기다리는 여를 꽃들이 내 산책길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 질박하면서도 청초한 꽃들과는 마주치고 가슴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 여를 더위를 잊는 한 방법이다.

장흥 수문포의 뱀산 마루에 바야흐로 해가 떠오른다. 햇빛에 눈이 부신다. 한낮과 저녁에는 집안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아침에 바닷가 산책을 한다. 농로를 따라 바다로 나갔다가 활 등처럼 휘어진 연안의 모래밭을 돌아서 아스팔트 깔린 차길로 들어선다.

1km 남짓의 차길 양쪽 가장자리에 무궁화 나무들 사십여 그루가 아열대성 종려나무 가로수를 사이사이에 들성들 서 있다. 내 키를 재는 그들은 7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앞으로 10월까지의 피고 지고를 반복하리라. 꽃잎은 연한 보라색인데 노란 솔이 있는 안쪽 화방으로 들어가면서 붉어진다. 꽃잎들은 기운차게 활짝 열려 있다.

여기 위하여 봄에 잠깐 화사하게 꽃을 터뜨리는 뱀나무 꽃길을 조성하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무궁화의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나는 꽃에 이데올로기적인 정서를 곁들여 생각하고 싶지 않다. 뱀나무를 일본 국화로 떠올리는 것은 불쾌하다. 진달래꽃을 북한의 국화로 떠올리는 것도 상쾌하지 않다.

고려가요인 <처용가>에 ‘머자 외야자 녹이아’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처용과 함께 놀던 여인의 이름이었다. 그 속의 (머자)는 버찌를 말하는 것이고, 버찌는 뱀나무의 열매이다. 뱀나무는 고려 때부터 한반도에 존재한 나무들이다. 그 뱀나무가 일본 국화라는 이유로 팔시받아서서 안 된다.

진달래꽃은 봄이면 산천에 불타오르곤 하는데 그것을 북한의 국화라고 하여 कै臂척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무궁화 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이다. 정상스럽게 가꾸지 않아도

## 무궁화 꽃길

한 나무가 이십여 송이의 꽃들을 달고 있다. 처음에는 수문포에서 울산마을까지 곧게 뻗어 있는 길 양쪽에 촘촘 심었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사십여 그루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해방되던 해에 나는 명덕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은 상급생들을 동원하여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었다.

도창욱 교장선생이 무궁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 무궁화는 한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100일 동안 계속하여 화려한 꽃을 피웠다. 흙꽃은 반드시 이른 새벽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지므로, 학생들은 늘 신선한 새꽃을 대할 수 있었다.

농업학교를 나온 선생님 한 분이 꺾꽂이나 접붙이기를 해서 묘목을 만들어 심고 가꾸었다. 지금 묘고에 그 무궁화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꽃을 터뜨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해방으로 조국을 찾은 뒤에는 아마 다른 학교들에서도 무궁화 심어 가꾸기에 열을 쏟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꽃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이 식어 있는 듯하다. 무궁화 보기가 힘들다.

많은 지자체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

으기 있게 무궁 무궁 잘 살고 꽃을 화사하게 터뜨린다. 나라의 꽃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정서를 가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애써 심어 가꾸어야 할 이유가 있다.

백백이 심겨나 들성들 심고, 잡풀을 쳐내 주면서 가꾸면, 그들이 숲을 만들고 2m 내지 4m 쯤 크게 자라 꽃송이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끊임없이 터뜨려줄 것이다.

무궁화 나무를 비어 있는 차길 가장자리에 심어 정성을 다해 가꾼다면 무궁화 꽃길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차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한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동안 내내 그들의 소리꽃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꽃들은 종류가 다양하다.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겹꽃도 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아침에 국기를 달면서, 길 가장자리에 자라면서 알 수 없는 함성을 가슴 뭉클하게 질러대듯 꽃잎들을 터뜨리고 있는 무궁화를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보면 좋지 않을까. 무궁화 꽃길 옆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축제를 열어 도 좋을 것이고.

<소설가>

## 박지원 “北 금강산회담 제안 통크게 받아야” 이산가족 마음 분주... 문의전화·방문 쇄도

### 北도 사과·재발방지 약속해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하면서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의 제안을 통크게 받아보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우리 정부가 굳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분리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북측의 요구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북측이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원하는 것은 그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도 금강산 관광을 하면 이익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회담은 금강산에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금강산을 계속 고집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한 당국이 박원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도 금강산관광 재개 명분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내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유엔이나 세계평화기구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진된 제안”이라며 “남북이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대해 “박 대통령의 원칙 고수라는 측면도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교류 협력을 원하는 측면도 있다”며 “꼭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거나 김 위원장이 경제제 이유를 무릎 꿇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적, 화상상봉도 대비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 북한이 호응해와 상봉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산가족들의 마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을 수용한 이튿날인 19일부터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받고 상봉시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에는 이산가족들의 문의 전화와 방문이 쇄도했다.

한적 관계자는 20일 “어제 하루에만 수 백통의 문의전화와 걸려왔다”며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했다.

상봉 행사 재개 여부와 절차 등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하며 ‘꼭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지난 3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아 가족 찾기 신청을 취소했는데 다시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 있는 한적 본사 이산가족 민원접수처에도 고령의 이산가족 수십 명이 다녀갔다.

이에 따라 한적은 담당 부서 직원 4명 외에 이웃 부서 직원까지 이산가족 지원업무를 돕고 있다. 민원실에는 봉사원 2명이 추가로 배치돼 안내하고 있다.

한적은 또 북한이 제안한 화상상봉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 본사에 있는 화상상봉실의 설비를 점검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상상봉실은 서울 한적 본사에 5개, 수원과 인천, 대전, 광주, 제주, 춘천 등 지역 적십자사에 8개 등 전국적으로 모두 13개가 설치돼 있다. 북한에는 평양에 10개가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동의·우선순위·낭비방지’ 朴대통령 예산 3원칙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또 전월세난 해법과 관련,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를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후 공급, 월세 부담 완화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

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달 4~11일 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4~7일 제8차 G 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7~11일 쯔영 탄 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민 방문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증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인 앞에서 70m 변호시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인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독신속 친환경 행복주택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본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신기동(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 ▶광산구 신창동 생산부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 귀농지, 전원주택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 펜션, 관광농원 등 다양)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 전원주택, 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아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아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아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아간반 :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아간반 :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문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s.jne.go.kr